

북한 위기에 대한 린든 라루쉬의 긴급 제안

—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 주자, 라루쉬, 평양행 고려 중

March 12, 2003

오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린든 라루쉬 (Lyndon H. LaRouche)는, 일종의 최종 기한 (deadline)" 이후에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부르짖는 UN 에 제기된 모든 제의들에 반대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은 북한과의 열전의 위험과 직접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면, 북한은 자연히 자신들이 다음 대상이라고 가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사태는 악화되어 쉽사리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라크에 "최종 기한"부를 두는 어떠한 제안도,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온 세계를 임박한 전쟁으로 - 그것도 두 전선에서 - 몰아넣음을 뜻할 뿐이다. 그것으론 안 된다.

그 대안으로, 우리는 전쟁을 피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현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시 행정부는 세계가 구조적 금융 파국의 길의 종반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대변인 아리 프라이셔 (Ari Fleischer)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최근의 어리석은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지금 난장판이다.
2. 부시 대통령은 모든 유토피안(Utopians: 전쟁광) 집단을 행정부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민주당 유력 지도부가 조셉 리버만 (Joseph Lieberman)과 민주당 내에서 전쟁 정책을 밀어붙여온 민주당 지도 협의회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의 모든 인사들을 몰아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불필요하고도 파괴적인 중동 전쟁을 피하기 위해 사담 후세인과 타결을 볼 조건이 갖추어 질 것이다.

서 유럽과의 대화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쟁점은 역시 경제이다. 독일은 이미 유라시아 교역과 경제 하부구조 개축에 기초한 독일 경제 부흥을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기초 위에,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의 재건 노력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미국은 건국 후 첫 백년간 잘 적용된 미국 체제 (American System)"식 경제 정책들에 더욱 합당한,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를 마련한 다음, 부시 행정부는 서 유럽, 러시아, 중국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북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착수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이 중지되고 미국과 유럽간의 협력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러시아와 중국, 양국 모두 북한 위기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은 쉽게 기대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린든 라루쉬는 북한과의 대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제의했다. 라루쉬는 평양에 가서 김 정일 위원장을 만나, 직접 대화를 통해,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 지도자의 개인적 의사 타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활용함은, 이라크 전쟁의 주된 반대자로서의 명성이 있는 라루쉬로서는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라루쉬의 중재역은, 워싱턴의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경의 중국 정부로부터도 그의 노력에 협조한다는 명백한 의사의 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 아시아, 중동,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라루쉬가 그의 외교적 노력을 비밀 막후 접촉을 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시의적절한 일이다.